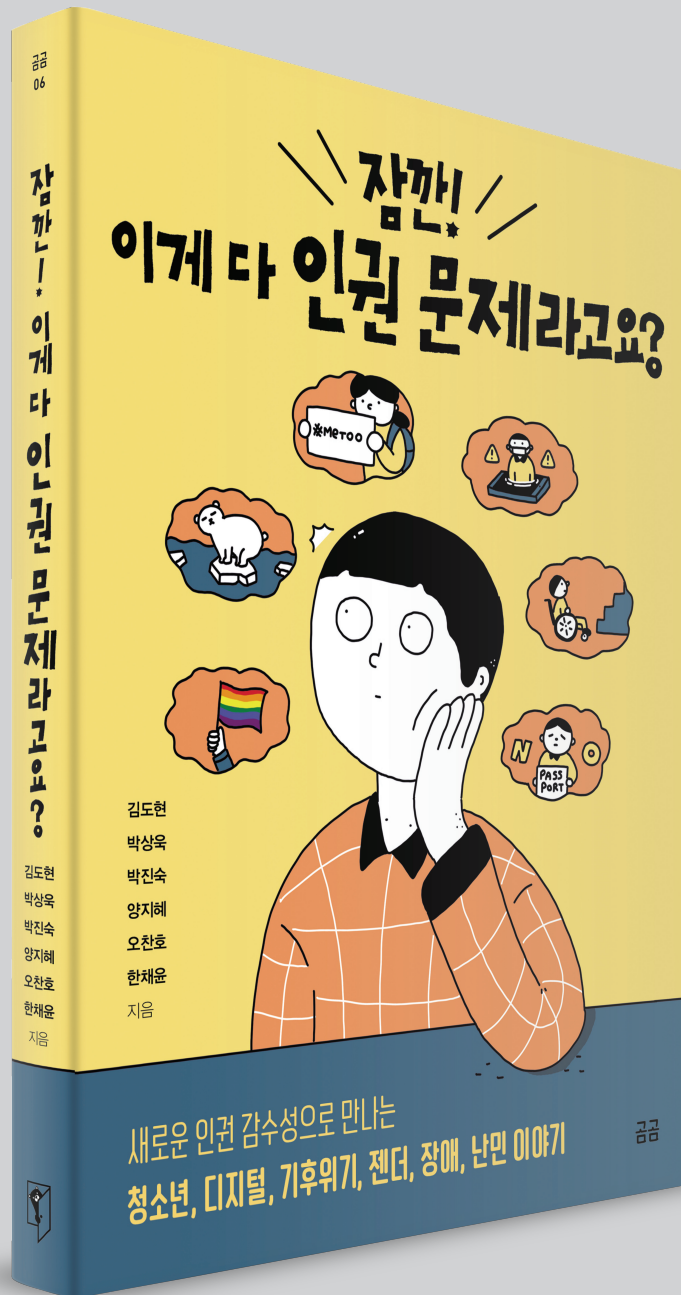


도장중학교 국어교사 김선산



분야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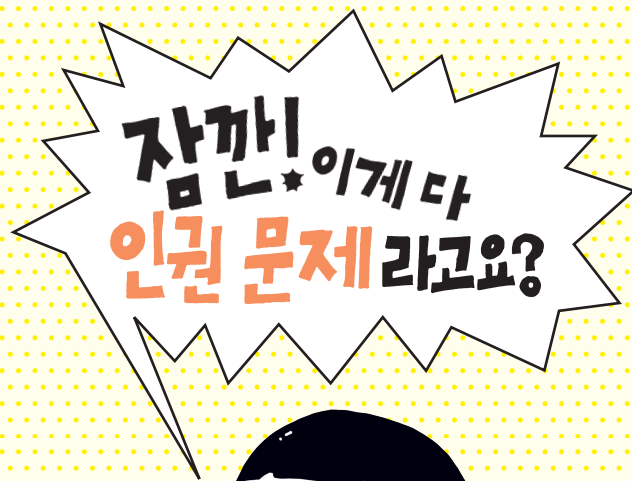
키워드

#인권 #청소년 #디지털 #기후위기 #젠더 #장애 #난민

☆ 책 소개 ☆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인권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배제의 시대를 건너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예민하고 새로운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 광장과 도로, 디지털 세상을 누비는 청소년들의 일상에서부터 인권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잠깐! 이게 다 인권 문제라고요?》는 젠더와 장애, 난민과 같은 익숙한 주제에서부터 청소년, 디지털, 기후위기같이 다소 생소한 영역까지 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 사회학자, 기자, 성교육 전문가, 장애학교 교사, 사회 활동가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인권 개념을 설명한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인권의 렌즈를 통해 일상을 바라보는 작고 큰 질문들을 마주하고, 인권의 의미를 폭넓게 사유하며, 직접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차례 ☆

1차시 청소년으로 읽는 인권



2차시 디지털로 읽는 인권



3차시 기후위기로 읽는 인권



4차시 젠더로 읽는 인권



5차시 장애로 읽는 인권



6차시 난민으로 읽는 인권





내용 확인하기

〈청소년으로 읽는 인권〉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글쓴이는 청소년 인권 운동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요?(20~21쪽)

2. 이 글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25~27쪽)

1	
2	
3	
4	
5	

3. 이 글을 바탕으로 스킴미투 운동의 주요 요구 사항을 정리해 보세요.(34~36쪽)

1	
2	
3	
4	

4. 이 글을 바탕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요약해 보세요.(42쪽)

생각 넓히기

<청소년으로 읽는 인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게임 섯다운제'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장점	단점
나의 입장	

2.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시각을 찾아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써 보세요.

3. 스쿨미투 운동 이후 학교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긴 글 쓰기

1. 다음 글을 읽어 보고 우리 사회에 비성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 이유를 아래 조건에 맞게 글을 써 보세요.

(...) 《어린이라는 세계》는 김소영 작가가 쓴 연재글의 모음이다. 작가는 서문에서 자신은 양육자도, 어린이 심리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라면 더 많은 사람이 어린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글에 담긴 다정한 독서교실 선생님과 만난 어린이들의 모습은 귀엽고, 의젓하고, 웃기고, 용감하기도 하다.

어린이는 어려운 신발끈 묶기를 도와주기를 원할까? 현성이는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묶을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라고 말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약한 존재로 남기를 원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린이는 유자청이 든 유리병 뚜껑을 열어주면서 우쭐해하기도 하고, 공이 무섭지 않다거나, 하나도 춤지 않다고 우기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놀랍게도 많은 어린이들은 품위 있게 행동하고 격식을 갖추어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어린이가 꼭 착한 건 아니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글자 배우기와 놀이, 선생님과의 관계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만남과 관찰을 통해 어린이의 모습들은 지워지거나 희화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된다.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가 특별히 의미를 갖는 지점은 이 어린이와 선생님의 이야기가 ‘귀여운 어린이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나’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고 공유된다는 점일 것이다. 독자들은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며 더 나아가 어린이에게 어느덧 타자로서의 어린이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의 존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독자들이 어떻게 어린이를 존중하고 배려할지, 한때 어린이였던 나를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어린이와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 된다.

(...) 이 글들은 어린이에게 유독 가혹했던 2020년 내내 노키즈존에 항의하며 불매를 선언하고, 코로나 시대 어린이의 학습과 놀이에 대해 근심하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다크웹의 손정우의 숨방망이 형량에 항의하고, N번방을 공론화시키고, 고발했던 디지털 시민들의 집단 지성과 함께 파도치며 공유되었음을 기억한다.

인터넷 초창기 학교에서 분리되어 모습을 드러낸 어린이들을 네티즌들은 ‘초딩’이라고 부르며 희화화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시민들에 의해 이러한 어린이들의 모습은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권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어린이의 세계》와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으로부터 읽는다.

출처: 박유신, 〈어린이는 ‘초딩’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다〉, 《한국일보》, 2020.12.18.

[조건]

- 어른으로부터 존중받았거나 그렇지 못했던 경험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른 후 그 당시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제시하세요.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성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내용 확인하기

〈디지털로 읽는 인권〉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글쓴이는 “사생활은 혼자만의 공간이나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말하는 사생활의 자유란 무엇일까요?(53~54쪽)

2. 확증 편향이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61~63쪽)

3. 이 글에 드러난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요약해 보세요.(74~76쪽)

4. 이 글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봅시다.(81~85쪽)

생각 넓히기

〈디지털로 읽는 인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2.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할 때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장점	단점
나의 입장	

3. 부모가 자녀의 허락 없이 SNS에 사진을 올리는 일에 대해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규제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4. 다음 기사를 참고해 배달원의 헬멧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일을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 블랙박스 녹화 기능을 켜고 대면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주문자의 △신체(얼굴 등) △주거지 △주거 구성원 △주문 품목 등이 예사로 노출된다.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 정보가 담길 여지가 있다. 비대면 거래가 잦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면 거래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터라 우려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배달 로봇도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는 이동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회사로 보낸다. 회사는 영상을 송출 받아 배달 오류를 바로잡고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한다. 물론 우아한형제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두고 해당 영상을 녹화(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한다. 다만 남기지 않는 것이지 노출되는 사실은 변함없다. 배달 산업의 필요에 따라서 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인(소비자) 권리 보장이 소홀해지는 것이다. 영상이 배달원이나 배달업체 사익을 목적으로 수집되기에 공익적 가치를 띠는 것으로 보기도 공색하다.

배달 주문 시 사전 고지하는 방편이 거론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달갑지는 않다. 주문 자체를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배달원에게 선택적 녹화의 중요도를 일깨우는 사전 대처도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개인의 의지에 달린 사안이라서 변수가 크다.

주문자의 정보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배달 영상’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블랙박스 장착으로 이륜차 운행이 지금보다 준법적으로 이뤄질지가 최대 기대 요인이다. 운행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탈선할 염려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찰관의 바디캠에 비유하자면 범죄 전후 사정을 헤아리는 수단인 동시에 독직폭행(공무원의 폭행 등 범죄)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것과 비슷하다. 배달업체의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다. 영상을 활용하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고 오류를 바로잡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당사자가 이해 충돌이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적기로 꼽고 있

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주문자는 라이더의 헬멧 블랙박스 존재와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 송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태반”이라며 “다만 배달원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효과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해당 사업자 등이 나서 주문자의 정보유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출처: <‘안전사고·범죄예방 효과’ Vs ‘주문자 정보 노출’ 논란>, 《이데일리》, 2021.07.23.

긴 글 쓰기

1. 기사를 참고하여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래 조건에 맞게 글로 써 봅시다.

(...) 환자단체에서는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취상태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수술실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수술하는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는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대리수술·수술실 내 성범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CCTV 설치가 해결책은 아니 라고 말한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공청회에서 “2013~2018년 8월까지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으로 발생률은 0.001% 수준”이라며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법안은 통과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CCTV를 통해 감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의료 행위가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 협회(의협)는 지난 1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세계의사회(WMA)의 서한을 공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출처: <“대리수술 근절” vs “수술환경 해체”... 수술실 CCTV 찬반 팽팽>, 《중앙일보》, 2021.06.21.

[조건]

- 찬반 혹은 제3의 대안 등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세요.
-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내용 확인하기

〈기후위기로 읽는 인권〉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이 글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기상 이변들을 정리해 보세요.(91~94쪽)

년도	기상 이변
2018년	
2019년	
2020년	

2. ‘기후변화와 리스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98~101쪽)

항목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위험)
기온	
멸종 위험	
해수면 상승	

3. ‘탄소 예산’이란 어떤 개념인지 찾아보고 기후위기가 세대를 이어 영향을 끼치는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110~113쪽)

4. ‘원 헬스’의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119~122쪽)

생각 넓히기

〈기후위기로 읽는 인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다음 기사를 참고해 폭염 피해가 국가 사이에서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재난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무너뜨린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9일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 실무 그룹 보고서를 통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이 폭염에 취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저소득국 밀집 지역이다.

(...) 이러한 격차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폭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냉방 시설, 보호 기반 시설 설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만약 적응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적응의 편익도 동시에 발생한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높은 지역은 건강과 안전 대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난한 국가는 온전히 피해를 겪게 된다. 이 때문에 빈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지만 선진국에선 폭염 사망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예측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린스톤 교수는 “기후 위험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소득과 적응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에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응에 있어 경제성장도 중요하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늘고 회복을 위한 투자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60% 감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소득이 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망률은 10만 명당 200명 이상이다. 결국 경제성장 유인이 없는 국가들은 적응을 위한 역량이 부족해 폭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폭염 재난은 돈을 피해간다... 빈국과 빈자에 더 치명타〉, 《국민일보》, 2021.08.10.

2. 기후위기가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103~106쪽)

3. 다음 기사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 '탈석탄'이 가능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적어 봅시다.

(...) 독일의 과거를 보면 한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2010년 독일의 발전량 비중은 석탄(43%), 원전(22%), 재생에너지 등(19%)의 순서였다. 현재 한국만큼 석탄과 원전 합계 비율이 65%로 높았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독일은 석탄 비중을 30%까지 낮췄고 원전도 12%로 낮췄다. 재생에너지 등을 41%로 끌어올렸다. 2022년까지 탈원전, 2038년까지 탈석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국내 기후·환경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단체 '석탄을 넘어서'는 6일 자료를 내 독일의 탈석탄 계획에서의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 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탈석탄'임을 확인한 뒤, 2038년 탈석탄 목표와 지역·산업·노동자를 위한 구체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가 선행됐다"고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 사회는 지난해 7월 2038년 탈석탄을 명시한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과 6월까지 3차례의 경매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뒤 4.78GW, 1.514GW, 2.133GW 3곳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했다. 이러한 경매는 2027년까지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 강제로 발전소가 폐지된다. 정부와 에너지 회사는 정부가 갈탄발전사에 지난해부터 15년 동안 총 43억 유로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최대 4만 명에 이르는 석탄·갈탄 광산과 발전소 노동자에게도 고용조정지원금을 고용관계 종료일 다음부터 최장 5년 동안 지급한다. 이 단체는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고려해 탈석탄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보상 체제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탈원전·탈석탄하면 전기요금 뛰나요? '탄소중립 궁극증' 4가지>, 《한겨레》, 2021.08.09.

4. 기후위기와 코로나19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116~119쪽)

긴 글 쓰기

1.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 조건에 맞게 제시해 봅시다.

[조건]

-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세요.
-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내용 확인하기

〈젠더로 읽는 인권〉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역차별은 무엇을 뜻하나요?(128쪽)

Blank space for answer to question 1.

2.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135쪽)

외부에서 정하는 성별이 _____이라면 내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성별이 있습니다. 이를 _____이라고 합니다. (...) 성별 정체성에 남성, 여성 두 개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_____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_____’ 혹은 ‘_____’, ‘_____’ 등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이 글을 바탕으로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144~149쪽)

Blank space for answer to question 3.

4. 이 글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150~156쪽)

Blank space for answer to question 4.

생각 넓히기

<젠더로 읽는 인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이 생각해 봅시다.

1. 다음 두 가지 기사를 읽고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이라는 잣대로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은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걸그룹 ‘에프엑스’로 2009년 데뷔한 이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엠버의 ‘여성성’에 대한 공격은 ‘꾸준히’ 존재했다. ‘에프엑스’에서 엠버는 대체로 짧은 머리를 하고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은 채로 랩을 했다. ‘여성성’에 맞지 않는 그의 옷차림은 과도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과도한 관심은 오래지 않아 폭력으로 바뀌었다.

한국 예능은 엠버에게 ‘여성성의 상징’인 치마를 입히고 싶어 했고, 급기야 2015년 3월 방송됐던 <진짜 사나이>에서 엠버에게 치마를 입힌 제작진들은 ‘이렇게 예뻐도 됩니까?’라는 자막을 ‘달아주었다.’ ‘엠버가 치마를 입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는데 ‘천상 여자’, ‘여성스러운 각선미’, ‘애교 폭발’, 비로소 ‘에프엑스가 걸그룹이 됐다’는 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는 식이었다. 마치 치마를 입어야만 여성으로서 증명받을 수 있다는 듯했다.

(...) 엠버는 자신을 향한 뽀족한 시선과 비난들을 외면하기보다 늘 똑바로 응시하는 것을 택했다. “너는 여자처럼 언제 할 거야?” 저는 여자예요. 여자는 원하는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직접 쓴 트위터 글도 인터넷 상에서 오랫동안 회자됐다. 이는 ‘92년생 여성’인 엠버가 여성이자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사는 법을 터득한 결과가 아닐까.

‘자기 자신으로서 사는 법’에 대한 엠버의 꾸준한 발언은 이후로도 이어진다. 엠버는 2015년 7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개인적으로 남자나 여자는 하나의 외모로 국한돼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의 형태와 종류는 다양하며 우리들 모두는 다 다릅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올리기도 했다. 엠버는 그렇게 자신의 여성성을 문제시 삼는 사람들을 두고 줄곧 “다름을 존중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를 표해왔다.

출처: 유지영, <‘내 가슴은 어딴가요?’ 에프엑스 엠버의 유쾌한 한방>, 《오마이뉴스》, 2017.10.19.

“저는 하이힐을 신으면 제가 영웅이 된 거 같아요. 하이힐은 슈퍼맨의 망토 같은 존재죠.”

5월 9일 방송된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그룹 2AM 조권이 박솔녀가 만든 7cm 꽃신을 신으며 한 말이다. 조권은 여성 한복도 거리낌 없이 소화하며 “K 패션을 알린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웃었다. 남성은 남성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던 박솔녀조차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할 정도.

조권의 남녀 구분 없는 패션과 퍼포먼스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조권이 힐을 신는 모습에 패널 김숙이 일찌감치 “조권에게 힐은 자신감”이라고 소개하고, 전현무가 “저게 조권 취향”이라고 거들었을 정도. 이제 조권에게 왜 여성복을 입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는 경계 없는 패션의 선구자로 떠올랐다.

(...) 조권에게 하이힐은 파격적 패션 아이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형 기획사에서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견뎠고, 2AM이라는 발라드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고수한다는 것. 어쩌면 연예인 조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정, 학교, 직장 등에 소속돼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권은 우리 모두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일깨운다.

출처: 이해정, <‘하이힐’ 신는 조권이 바꾸고 있는 것>, 《뉴스엔》, 2021.05.10.

2. 다음 기사를 읽고 군대 내 여성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추가 성추행과 회유·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의 성범죄 '흑역사'가 단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위계에 의한 폐쇄적 조직문화는 물론, 은폐를 시도하는 등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깔려 있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해도 '불문에 부쳐달라'는 주변의 압박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군의 성범죄 대처가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 3월 군내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성인지 교육도 연 1회에서 4회로 늘렸다. 그럼에도 부대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군 성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2018년에는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지난해에는 육군 118건, 해군·해병대 45건, 공군 19건 등의 성범죄가 일어났다.

군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잘못된 회식문화' '상관의 권력을 이용한 압력' '잘못을 숨기려는 조직 문화' 등이 꼽힌다. 군내 성추행은 회식을 빙자한 술자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에 취한 상관에 의한 소위 '권력형 성희롱·성추행'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이후 가해자나 부서장들이 "없던 일로 눈감아 달라"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실제 피해자 이모 부사관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해당 부대에 파견됐던 다른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한 번만 봐달라"는 요청에 문제제기를 포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주변의 조직적 은폐와 회유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간법원보다 군사법원이 성범죄에 관대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 선고는 175건(10.2%)이었음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15.0%포인트 낮은 수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사 범죄도 아닌 성폭력 사건을 왜 군에서 수사하고 군사 재판을 받게 해야 하나"며 "비군사 범죄는 민간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가 행복 추구권과 연결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 최대 영화상인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할리우드 스타 엘렌 페이지가 남성 성전환자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엘리엇 페이지’로 불러달라고 공개 선언했다.

캐나다 출신의 배우 페이지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드디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추구할 만큼 나를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해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나는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사랑하고, 귀어라는 사실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아주 행복하지만 동시에 “‘농담’, 혐오, 침입, 그리고 공격이 무섭기도 하다”며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페이지는 또 올해 최소 40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된 통계를 인용하며 “우리는 이런 공격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랑이 넘치며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꾸준히 LGBTQ 인권 운동가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 1일 발표 이후 많은 응원을 받았다. 닉 아담스 트랜스젠더 미디어 GLAAD 이사는 “엘리엇 페이지는 LGBTQ 사람들을 대변해왔다”며 “이제 수많은 트랜스 및 논바이너리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모든 트랜스젠더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받아 들여질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축하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들의 슈퍼 히어로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출처: <영화 ‘주노’ 소녀역 엘렌 페이지 ‘트랜스젠더’ 고백… 엘리엇으로 개명>, 《BBC NEWS 코리아》, 2020.12.02.

긴 글 쓰기

1. 다음은 21대 국회 장혜영 의원이 SNS에서 진행한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 캠페인에 참여한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내가 이제 쓰지 않아야 할 말’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아래 조건에 맞게 글로 써 봅시다.

저는 ‘선택 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단어를 열등함의 동의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O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서투르고 뒤떨어진 존재만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서이고 무엇보다 제가 어린이였을 때 어른들의 그런 시선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교사, 여배우, 여의사’ 등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직업 세계에서 남성을 디폴트로 상정하고 여성을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을 사용성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의미가 포함된 ‘처녀작’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O밍아웃’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성 소수자에 대한 멸시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 그 중한 다짐을 다른 것들, 흔하게는 자기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걸 말하는 데 쓰는 건 누군가의 일대의 결정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또한 ‘외국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서 속상하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흑형’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극히 협소한 인종적 특징만으로 환원해서 납작한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별생각 없이 쓰고 있던 말에 대해 누군가가 “그건 차별의 언어야”라고 지적한다면 “그랬구나, 이제 안 써야겠네” 보다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아닌데 아닌데?”라는 반발심이 먼저 들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난 차별의 가해자가 아니야”라고 방어하게 되고 “이 말이 왜?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비유일 뿐인데...” 라는 생각으로 곧잘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보다는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에 더 중점을 두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나는 이런 말을 안 쓰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야”를 내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었지만 더는 아니에요”를 말하기 위함으로 읽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부끄럽지만 위에 언급한 단어는 모두 저도 살면서 한 번 이상 썼던, 혹은 썼을지도 모르는 말입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하게 선한 사람은 없고 차별을 가하는 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이 우리 사회의 누군가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어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에, 내 주변에 실존하는 누군가가 차별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나 역시 언젠가는 차별 받고 상처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의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응원하며 쓰는 릴레이 글입니다.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출처: 장류진, <“난 차별의 가해자가 아니야!”>

* 장류진 작가는 《일의 기쁨과 슬픔》, 《새벽의 방문자들》의 저자입니다.

[조건]

- 일상에서 접하는 표현 중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에 포함될 말을 한 가지 이상 제시하세요.
- 그러한 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내용 확인하기

<장애로 읽는 인권>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이 글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159~160쪽)

2. 이 글을 통해 미국의 마서스비니아어드 섬에서 농인과 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정리해 봅시다.(177~178쪽)

3. 이 글을 통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장애인 시설이 사라진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185~187쪽)

생각 넓히기

<장애로 읽는 인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조항이 엄연히 법률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권리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봅시다.

2. 다음 사례에서 특수학교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 청원구 율량동 택지개발지구에 '청주 특수학교'(가칭)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다. 9,4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27개 학급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3년 3월 개교하면, 유치원과 초등과정에 있는 장애 학생 156명이 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특수학교 부지는 청주우체국과 동청주세무서 사이의 율량지구에 있다. 수천 가구의 아파트 단지과 충북 유일의 5성급 특급호텔이 인접해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요지다. 보통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특수학교 부지가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부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 특수학교는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지 택지개발지구에 건립돼 교육 취약층인 장애 학생들의 학습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학교 설립 계획이 처음 알려진 2019년 7월에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부지 인근 학교 학부모들은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대의 글을 올렸고,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특수학교 설립 저지 비상대책위를 꾸리기까지 했을 정도다. 하지만 곧장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설득 작업이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관련 기관·단체와 팀을 구성해 아파트 단지별로 대화에 나섰다. 신설 특수학교가 기존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특수학교인 혜원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그리고 장애아동 전문교육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끈질긴 설득에 인근 주민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다. 설립 계획이 알려진 지 불과 5개월 만인 2019년 12월 주민설명회 개최가 가능했을 정도다. 이후 설립 절차는 일사천리로 추진됐고, 계획이 처음 알려진 지 2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임동현 도의원은 “특수학교를 큰 논란 없이 설립하게 된 밑거름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라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지역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청주 지역의 아파트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만들어진 것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23일 11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해당 카페 게시판에 '청주 율량 지구에 특수학교 신설 첫 삽'이란 제목의 기사 내용이 게시됐다. 이후 게시글에는 '정말 행복한 소식' '꼭 필요한 시설'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 등 대부분 이를 반기는 댓글이 이어졌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라고 밝힌 한 글쓴이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답글에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출처: <“명품도시, 명품시민”... '님비' 뚫고 도심에 특수학교 첫 삽 뜬 청주>, 《한국일보》, 2021.07.05.

3. 다음을 참고하여 수어 동작을 안무에 활용한 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안무팀은 수어 동작의 정확한 표현에 특히 신경 썼다. 빅히트뮤직 쪽은 “대표 단어와 상징적인 동작을 정한 후 안무로 표현해 보았고, (농인, 수어 통역사 같은)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하면서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사실상 안무를 함께 만들어간 셈이다.

정확한 동작과 함께 멤버들이 가장 신경 쓴 것은 표정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표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즐겁다’를 뜻하는 수어 동작에는 ‘반갑다’는 의미도 있다. 멤버들이 농인들에게 ‘즐겁게’라는 노랫말을 이해시키려면 한껏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농인 유튜버 하개월은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 “수어는 표정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방탄소년단이 활기찬 느낌과 즐거운 표정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 단순히 수어를 안무에 활용해 우리 모두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해서 특별한 게 아니다. 김동호 통역사는 “농인분들에게 음악은 문화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장르다. 노랫말을 이해하고 춤을 따라 추려면 조금 더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화적 거리가 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음악 소리는 ‘웅’ 하고 진동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노랫말과 맞는 안무 동작을 수어로 표현하면서 농인들도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탄소년단이 그 차이를 줄여 줬다”고 말했다.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상대 말을 입모양으로 읽는 농인들이 소통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방탄소년단의 시도가 더욱 각별하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셀럽’의 구실을 떠올리게도 한다. 시대극 <미스터 션샤인>이 10대들에게 ‘의병’에 대해 공부하게 했던 것처럼, ‘퍼미션 투 댄스’ 수어 안무는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들이 수어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아미들은 개인 블로그 등에 수어의 의미를 전하고, 국립국어원 수어사전을 공유하기도 한다. 한국은 2016년 법이 개정돼 ‘수화’라는 표현이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는 ‘수어’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알리고 있다. ‘퍼미션 투 댄스’에서 활용한 수어 동작은 영어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수어’(국제 수화)다. 아미들은 ‘춤추다’ ‘평화’의 경우 한국 수어 표현이 다르다는 정보도 함께 전한다.

김동호 통역사는 “셀럽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 국제 수어를 써서 전세계 농인들을 위해 음악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사회적 약자, 관심을 덜 받는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도 소셜미디어에서 “청각 장애로 음악을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15억 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출처: <세계 농인들 감동시킨 BTS ‘수어 안무’는 어떻게 나왔나>, 《한겨레》, 2021. 07.15.

긴 글 쓰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탈시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건에 맞게 글로 써 봅시다.

• 인물 소개

최혜영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탈시설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장혜영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탈시설 지원법을 공동발의했다.

• 탈시설 지원법, 어떤 법인가요?

최혜영: 장애인의 삶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71%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요. 통장, 신분증을 시설에서 관리하기도 하고요.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67%나 됩니다. 한번 입소하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도 많아요.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들을 한곳에 모아 두고 사회와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장혜영: 탈시설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권리로서 탈시설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2만 9천 명 정도거든요. 이분들이 10년 안에 모두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시설이나 당사자를 도울 수 있는지도 담고 있고요.

• 탈시설 지원법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혜영: (...) 너무 속상한 통계가 있어요. 2017년 기준으로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연령대를 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가 가장 많아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갈 곳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겠죠. 성인이 되고 나서 지역사회에서 집을 찾고, 일터를 찾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조받으며, 부모가 아니더라도 활동지원사 등 자신의 일상을 지원해 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완전히 없애고 탈시설을 이뤄낸 스웨덴 같은 국가의 활동가들은 입을 모아 “입법이 먼저다.”라고 말해요. 법을 만들어서 몇 년도까지 시설이 정말 없어진다는 시점을 박아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지역의 준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최혜영: (...) 나아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탈시설을 이룬 해외 나라들을 보면, 반드시 탈시설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실제 정책과 예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선배·동료 의원님들 67명과 함께 탈시설 지원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조건]

-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탈시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제시하세요.
-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점을 제시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내용 확인하기

〈난민으로 읽는 인권〉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이 글을 통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난민’의 정의를 정리해 봅시다.(194~195쪽)

2. 이 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201~204쪽)

3. 이 글을 바탕으로 인도적 체류 지위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불안한 신분인 이유에 대해 적어 봅시다.(221쪽)

생각 넓히기

〈난민으로 읽는 인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마소마의 모습이 다른 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생각해 봅시다.

도쿄올림픽에 첫 출전한 난민팀 여성 사이클 선수.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프랑스에 망명한 난민팀 여성 사이클 대표 마소마 알리 자다⁽²⁵⁾ 선수는 1등과 ‘압도적인 차이’로 꼴찌를 차지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지난 28일 도쿄올림픽 여자 개인전 도로 사이클 경기에서 마소마는 44분 4초 31로 참가자 25명 중 25위에 그쳤습니다. 1등이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마소마는 대략 7km 정도 뒤에 있었고 남은 15km 구간은 내리막이 끝나고 오르막이 시작하는 구간이었지만, 마소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페달을 밟았습니다.

앞서 경기를 치르기 2주 전 마소마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끝내는 게 중요하다”며 “내 꿈은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마소마는 B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8,200만 명의 난민을 대표해 올

림픽에서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레이스 완주는 조국을 잃고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들과 스포츠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없는 국가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1996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그는 탈레반의 탄압을 피해 이웃 나라 이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탈레반 정권 붕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돌아온 뒤 10대 때 사이클에 입문했습니다. 여성 인권 유린이 심각한 아프가니스탄에선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사실상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고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소마가 자전거를 타면 시민들은 과일이나 돌을 던졌습니다. 차에 치일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소마의 가족들은 “자전거 타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소마와 그의 여동생 이야기는 프랑스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온 다큐멘터리를 본 한 프랑스 변호사가 인도적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후 열아홉의 나이로 2016년 마소마는 가족과 함께 고국인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그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난민 운동 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난민팀에 합류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마소마의 출전 소식은 아프가니스탄 동료들에게도 희망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선수 생활을 해온 아프가니스탄사이클링연맹 부국장 자흐라 사르마트는 “마소마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은 온갖 고초를 지켜 봤기에 지금의 그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난민팀 선수로 출전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자전거 탄다고 돌 맞아”, 왜? ...아프간 출신 난민팀 선수 “꼴찌지만 행복”>, 《KBS 뉴스》, 2021.07.30.

2.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무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다음을 참고하여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 2019년 7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58) 대표는 취임 기간의 절반 이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보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그가 가장 우려스럽게 바라봤던 현상은 바로 난민을 둘러싼 그릇된 정보의 확산이었다.

린치 대표는 20일 난민의 날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난민과 관련한 오해와 편견 등이 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태국, 케냐, 라이베리아 등 10곳이 넘는 국가를 누빈 그에게도 한국은 특별한 나라였다고 한다. 코

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자 잇달아 국경을 봉쇄하던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한국은 난민에게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어느 곳보다 난민에 긍정적인 시선을 갖춘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며 “동시에(인터넷상에서) 난민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한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가 유통되며 혐오가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은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혐오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는 증거가 더 많다”고 이내 부연했다.

유엔난민기구가 지난해 말 국내 성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3%가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제주 예멘 사태가 발생한 2018년에 비해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반대 비율(56%→53%)은 3%포인트 감소했다. 그는 “비대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며 “한국에 정착한 난민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막연한 공포감도 해소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사망 인구보다 출생 인구가 적어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에도 4천 명에 달하는 난민 인정자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내다봤다. 그는 “6·25 전쟁 등을 겪었던 한국인은 난민이나 실항민이 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것”이라며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도 내밀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보다도 개개인의 기부가 훨씬 많다는 점은 한국만의 특별함”이라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낸 난민 후원금은 540억여 원으로, 같은 해 정부 후원금인 323억여 원보다도 200억 원 이상 많다. 다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감한 국내 난민 인정률에는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난민 인정률은 2018년 3.6%에서 지난해 1.1%로 감소했다. 올해 1~4월은 0.3%에 그쳤다.

그는 “단순히 낮은 수치가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며,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억울한 이를 만들지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가 올 초 발표한 난민법 개정안대로 심사의 신속성이 강화된다면 보호받지 못한 이들이 생길 수 있다”며 “통역원과 전문 심사관 등을 충원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짜 난민’이라는 단어를 두고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난민 심사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개인 면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므로 선불리 ‘가짜’라는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와 태국에서 근무할 때 로힝야 난민을 심사할 일이 있었어요. 처음 밝힌 망명 이유는 구직이었지만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내전 탓에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덕에 난민 인정 근거를 찾아낸 셈이죠.”

1년여의 임기를 남긴 그는 “지금껏 거쳐 간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함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며 “남은 시간 동안 난민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팬데믹 시대 난민 혐오 확산… 정확한 정보 알려야”, 《매일경제》, 2021.06.20.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긴 글 쓰기

1. 기사를 참고하여 난민을 돕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 조건에 맞게 제시해 봅시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을 공항 로비에 갇혀 생활해야 했던 루렌도(48·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씨의 네 자녀들은 요즘 코로나19로 자주 학교를 갈 수는 없지만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 (...) 공항을 벗어나 안산에 머문 지도 반년이 지나고 있다. 처음 한 달쯤은 구세군 이주민 쉼터에서 생활하다 새 보금자리로 옮겨왔다. 지하층이라 낮에도 별이 들지 않아 어둡지만 그래도 루렌도 가족의 얼굴은 밝기만 하다.

루렌도 씨는 “월세방이긴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며 “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도 제법 갖추게 됐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아이들도 안산에 정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갔다. 아내 보베테(41) 씨는 “공항에서 책을 읽어 주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마다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루렌도 가족이 정착해 가는 데 가장 힘든 건 ‘언어’였다. 다행히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날도 센터에서 보내준 방문교사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한국어를 따라 읽고 따라 쓰느라 여념이 없었다. 부끄럼이 많던 레마는 한글을 익힌 뒤부터는 부쩍 자신감도 생겼다. 레마는 “한국 말은 배울수록 신기하고 재밌다”며 “열심히 해서 한국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일주일에 2~3회씩 한국어 전문 강사를 직접 집으로 보내 주고 있다. 루렌도 씨 부부는 “전담 관리자가 온라인 학습까지 꼼꼼하게 챙겨줘서 고맙다”며 “선생님과 가정통신문을 주고받도록 도와줘 학교생활이 어떤지도 알 수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루렌도 씨는 요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했다. 그동안 안산시와 여러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29만 원 등 생계비를 해결해왔지만, 20일이면 이런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루렌도 씨의 취업 제한 기간도 이달 말로 끝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당장 일자리를 찾는 게 급선무다. 그는 “불어를 가르치고 공장에서 일해 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안산에서 배운 한국어와 재봉 기술로 취직해 계속 안산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 정식으로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한 것도 걱정이다. 루렌도 가족은 난민 지위가 인정될 때까지 행정소송을 통해 1년마다 연장하는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혜택이 제한되고, 최악의 경우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난민 인정을 받아야 기초생활수급 등 자국민에 준하는 기초 생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망명해 온 콩고 출신 양골라인 루렌도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난 2018년 12월 28일, 입국은 불허됐고 여권은 압수당했다.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재판 역시 가족을 외면했지만, 다행히 항소심에서 “박해를 피하려는 급박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원심이 뒤집혔다.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고된 시간을 보낸 열 달. 특히 열 살도 안 된 네 자녀들에겐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다.

루렌도 씨처럼 불안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도 안산에만 1600여 명에 달한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 외국인은 1만 5천여 명으로 이 중 난민 지위를 받은 외국인은 5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조건]

-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세요.
- 실현 가능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